

남부지역에서 콩 품종별 생육 특성 비교

배진우^{1*}, 조수민¹, 박현진¹, 류종수¹, 한원영¹, 박진기¹, 정미혜¹, 윤영호¹, 전원태², 곽강수¹, 백인열¹

¹경상남도 밀양시 점필재로 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

²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

[서론]

국내 콩(*Glycine max* L.) 재배면적은 1980년대 초까지 20만 ha 재배되었지만,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 49천 ha 재배되고 있다. 하지만 콩은 된장, 두부 등으로 우리나라 음식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장류용 콩 품종의 생육 특성을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2016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밀양소재 시험포장에서 수행되었으며, 사용된 품종은 장류용 4품종(대원콩, 우람, 태광콩, 대풍)이다. 110cm 휴폭에서 고풍 2열로 조간 거리는 30cm, 주간거리는 40cm로 재배하였으며, 3립씩 파종하여 1주 2본으로 솟음작업을 실시하였다. 생육특성은 수확기에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장류용 콩의 생육특성은 품종에 따라 경장, 경태, 마디수, 분지수, 개체당 꼬투리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장은 기계화 품종인 우람이 78cm로 가장 길었으며 대풍이 55cm로 가장 짧았다. 마디수는 경장과 같이 우람이 16.2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풍이 15.1개로 가장 적었다. 경태는 태광콩이 12.6mm로 가장 굵었으며 대원콩이 10.9mm로 가장 얇았고, 분지수는 태광콩이 7.1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풍이 5.1개로 가장 적었다. 개체당 협수와 립수는 대원콩이 70.7개, 94.5개로 가장 많았다. 개체당 협수가 가장 적은 품종은 대풍으로 51.5개였으며, 개체당 립수는 76.9개로 태광콩이 가장 적었다. 종자 100립의 무게는 대원콩이 35.0g으로 가장 무거웠으며 대풍이 28.0g으로 가장 가벼웠다. 단위면적당 수량에서는 반복간 차이가 커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대원콩이 210kg/10a로 가장 많았고 대풍콩이 142kg/10a로 가장 적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119801)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55-350-1266, E-mail. bjw0409@korea.kr